



## 위대한 문일의 탑을 쌓자

학교장 / 김 영 석

우리 文一女高가 개교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벌써 나이 네 살이 된 것이다. 사람의 나이에 비유해 보면, 아직 어린 나이임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옹고 그림은 구별할 줄 알고 나름대로 자기 의사표시 정도는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본다.

네 살된 학교라면 두번째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니 어느 정도의 전통은 수립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위치도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돕는 가운데, 우리 文一の 전통이 하나 하나 쌓여지고 있다. 이젠 제법 학교 이름도 널리 알려지고 名門學校로서의 튼튼하게 다져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만 해도 택시를 타고 文一女高 가자고 하면, 열대중 3~4대 정도는 학교 이름도 처음 듣는다고 표정이었으나 요즘은 우리 文一女高를 모르는 택시는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공부 열심히 하는 學校, 大入성적이 좋은 學校로 정평이 나 있는 것이다. 1회 졸업생 언니들이 쌓아 올린 공적이며, 전통인 것이다.

이제 우리들이 이어받아 더 탄탄하게 더 높이 빛나는 文一の 전통을 쌓아 올릴 것이니,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없고 자랑스러운 文一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멀지않은 앞날에 여러분들은 엄마가 되어 자녀를 기르게 될 것이다.

자녀들에게 엄마가 다닌 훌륭한 文一女高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자랑스러웠던 高等學校 시절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교훈삼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차의 가정교육 자료를 되도록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學生이 學生답지 못하게 學校生活을 한 사람이 어찌 훗날 자식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는가!

1회 졸업생 언니들이 가끔 찾아와 하는 말이 있다. '대학생 생활을 해 보고야 고등학교 시절이 좋았음을 느낄 수 있다'고, 자기 평생에 가장 많은 추억

## 여러분은 勤儉節約을 생활화 해야한다 우리 모두는 후손들에게 빈곤을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남는 것이 高校 시절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귀중한,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高校 생활을 여러분에게 여하히 슬기롭게 그리고 후회없이 엮어나가고 있으며, 계속 엮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文一女高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文一人다운 생각과 文一人다운 행동으로 高校 3년 간을 잘 해 주기 바란다.

이 기회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하나는 서로 믿고 믿음있는 생활을 해달라는 말이다. 친구들끼리 서로가 믿어야 함은 물론, 제자는 스승을 믿고 존경해야하며, 스승은 제자를 믿고 사랑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부모는 자식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이 정부를 믿어야하고, 정부는 국민을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아쉬운 일이라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勤儉節約의 생활화가 우리 모두의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무역 수지가 드디어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전면 수입개방 압력까지 받고있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타개해 나가지 못하면 모처럼의 선진국 대열 진입이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어려웠던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우리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성장시킨 經濟를 이토록 무력하게 허물어 뜨릴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勤儉節約을 생활화 해야한다. 우리 모두는 후손들에게 빈곤을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學校에서나 家庭생활에 있어 전기 한 등, 수도물 한 방울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함은 물론, 책걸상을 비롯한 교구나 가정생활 용품들을 되도록 소중히 다루어, 그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도록 한사람 한사람이 노력을 하여 습관화되고 생활화된 수 있도록 文一人으로서의 전통을 하루속히 세워주길 당부한다.

끝으로 <文花> 제 4호가 나오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여 주신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文元